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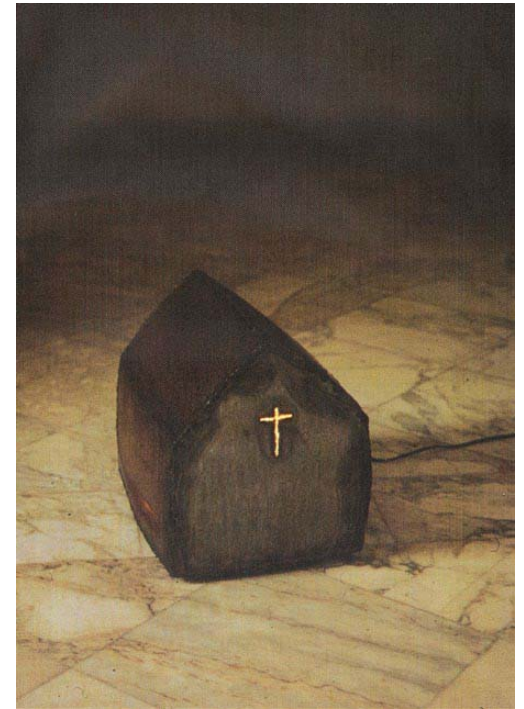
(Mouvement Chrétien d'Arts Plastiques pour le 21ème siècle)

윤성진 (조각가)



1998년 말,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지난 20세기를 회고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슬렁이고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독교 작가들이 이런 운동을 했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작가 몇 명이 서쪽으로 40km 지점 세느 강변에 위치한 Vaux sur Seine이란 마을에 모였다. 내가 주관한 모임으로 화가인 이 배, 손 석, 윤영화, (故)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아내로 현 대전 고암 미술관 관장이신 박인경 여사, Mosai를 연상케 하는 점잖은 풍모의 프랑스 작가 Bernard Bouton, 나의 아내이자 조각가인 박상숙, 이렇게 7명이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인경 여사가 제일 연장자였고, M. Bouton은 50대, 나와 다른 멤버들은 40대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이었다.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당시 온누리교회에 계셨던 박담희 목사님과 사모이신 갤러리 서미의 홍승원 사장이 동참해 주셨다.

뚜렷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들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작품세계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쉽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을 왜 어렵게 여기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미술계는 그 바탕이 비기독교적인 철학이거나 아예 반기독교적이어서 자칫 기독교 신앙을 드러냈다가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유럽에서는 수세기를 걸쳐 발전한 인본주의 철학과 20세기에 발달한 과학의 영향으로 성경은 신화 같은 실재하지 않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들에게 중세의 기독교 문화는 껍데기만 남은 유적,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의 인문학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인권이라든가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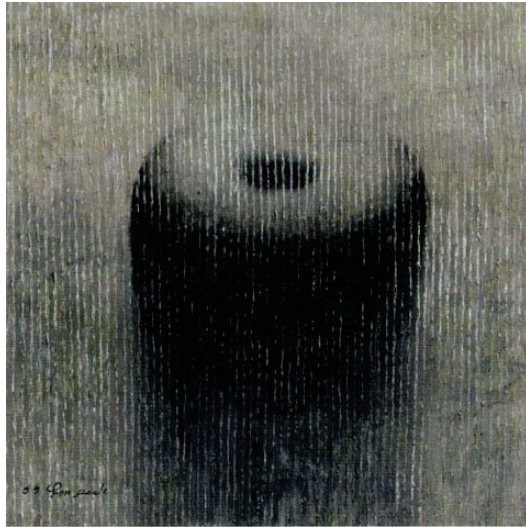
박상숙, 휴식, 2000, 35X30X50cm, 철, 전등, 소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미술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아방가르드의 성격이 중시되면서 오히려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품을 영성을 통하여 감상하려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90년대 이후 미술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조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희랍 종교 수많은 신 중 '알지 못하는 신'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려 한 것처럼(행 17:16-23),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을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21세기 미술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미술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우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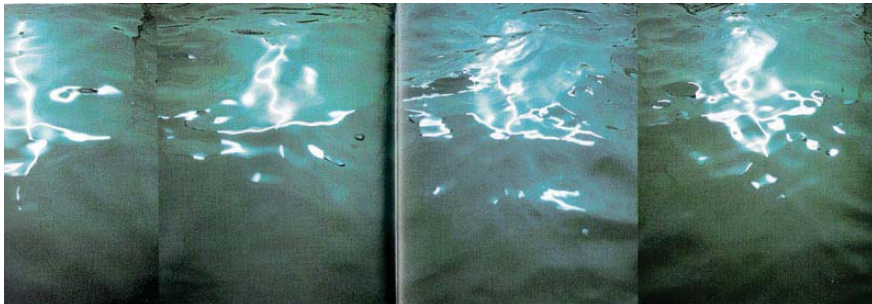
작품의 형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독교 형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과 영성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을 하던가, 기독교적 명제가 확실한 작품을 하던가 작가 각자가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며 분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일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힘을 모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작은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 정예로 하고 점차 우리의 뜻을 넓혀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임을 이끌기 위하여 회장은 내가, 총무는 가장 젊은 윤영화가 맡기로 하였고 수차례 모임을 통해 힘을 모아 2000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파리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전시회에 매우 적합한 곳을 찾아 주셨다. 아무데서나 할 수도 없고 이름 있는 상업화랑에서 이 전시회를 열어줄 리도 없었다. 여러 곳을 찾아 다니며 고심하던 중, 우연히 한 전시공간을 발견하였다. 파리의 중심인 파리시청 바로 옆쪽에 있는 루터교 교회의 아름다운 회랑이었다(Cloître des Billettes-2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그곳은 파리의 중요 유적지 중 하나로 수많은 행인과 여행객



손석, 기다림, 1999, 100x100cm,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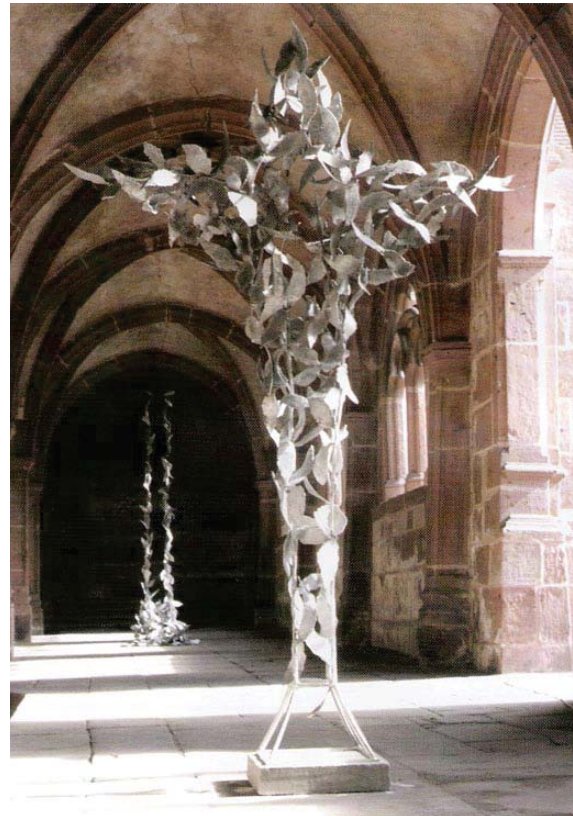
이 지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큰길에서 회랑으로 직접 통하는 문이 있고 회랑 사방이 벽으로 둘러져 있어서 그림을 걸기에 적합했다. 회랑 중앙의 정원에는 조각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가끔 Tapis 장사들이 빌려서 Tapis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보았었는데 아무도 미술 전시장으로 사용할 생각은 못했던 곳이다. 교회의 담당자를 만나 우리의 전시회를 설명하니 반가워했다. 장사꾼에게 교회 일부를 대여하며 짬짬하던 차에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반 현대미술 작가들은 교회라서 하라고 해도 안하는 곳이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파리에서 호모들이 모이는 중심 지역인지라 전도지로도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전시회를 관



이 배, 영적 감수성, 2000, 110x150cm 4개, 종이위에 목탄

람하던 젊은 호모 부부(?)가 작품을 감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일이 생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더니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정말 교회를 갖는지, 이혼을 하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결과는 어떤 갤러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주위의 교회나 친지들의 축화와 격려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들이 비용을 내가며 지속적으로 계몽적인 전시를 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상업적인 갤러리를 만들어 일반 현대미술을 취급하며 그 안에 기독교 미술을 끼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파리 회랑의 중심인 피카소 미술관 앞에 갤러리 뤼멘(LUMEN-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Lumen Christi라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따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이라는 회랑을 열게 되었다(20, rue de Thorigny, 75003 Paris). 교포들이 한국인이 이런 곳에서 회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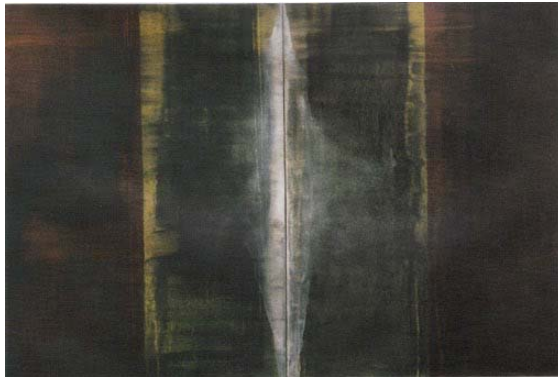


윤성진, 생명나무십자가, 1999, h 230cm, 알루미늄

하고 있더니 자랑스럽다며 감탄하는 좋은 자리였다. 재정적인 부담이 컸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틈틈이 기독교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의 기독교 현대미술', '예수님의 얼굴', '흠어진 나그네', '성령의 빛' 등의 전시회를 기획,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미술운동'의 뜻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처음에 참여했던 작가 외에 박인경, 안동숙, 권순철, 진유영, 홍순모, 오의석, 김용식, 권여현, 조 환, 류승환, 박병훈, 권순학 등 한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독교 작가들도 초대하였다. 특별한 일도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현대미술'이란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을 때, 파리장로교회 이극범 목사님이 마침 옥한흠 목사님이 파리에 오시는데 옥 목사님이 사진작업을 많이 하시니 작가로 데뷔시켜 드리자고 제안하셨다. 전시장에 오셔서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던 옥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첫 전시회가 2000년 5월이었으니 벌써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처음 이 운동에 동참한 이 배, 손 석 등이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으며, 윤영화는 고신대학 교수가 되어 귀국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박인경 여사도 고암 선생님 추모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니 하나님도 이 운동을 기뻐하신다고 여겨진다.

14년 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 글을 쓰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때에 품었던 뜻을 다시 한 번 크게 일으켜 세우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때보다 신앙이나 작품의 기량 등 모두들 성숙하여졌을 터이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강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꾀 본다.



위_윤영화, 열림2, 1999, 153X102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철분
아래_Bernard Bouton, 회랑, 1998, 50X15X30cm, 돌, 모자이크, 프레스코



윤성진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5년 이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2005년에 파리에서 갤러리 뤼멘을 설립하였다. 그간 국내외에서 7번의 개인전과 100여 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가하였고 1986년 동아미술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인촌기념관, 전쟁기념관, 한국은행,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L.A. Cornerstone 교회, CTS 사옥, 오산고등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와 주광조 장로 이야기

순교자의 가족이 겪어 낸 질곡
그리고 회복의 은총!
의에 살고 의에 죽은 아버지,
그의 빛과 그림자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주기철 목사와 그의 아들 주광조 장로의
발자취를 좇아 전국을 누비며
가슴에 담아 본 행적

유승준 지음 | A5변형 | 392면 | 15,000원



주기철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출간!

※책 표지를 벗겨 펼치면 주기철 목사의 명실고(일사각오)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